

실내건축교육의 미래적 방향제시를 위한 건축교육 동향에 관한 분석

Analysis of Issues in Architectural Education for the future directions of Interior Architectural Education

조현미*/Cho, Hyeon-Mi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most representative issues of 1990s in the area of architectural design education, which has been interconnected very closely with the interior-architectural design since the history began, to establish a foundational reconstruction of interior-architectural education program.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issues of architectural education of 1990s, three subjects of written materials were examined : (1)the history of architectural education, (2)the theories of architectural design, (3)the works of architectural students performing the architectural design program

in schools.

This analysis of existing writings found four major issues of 1990s which are performing the fundamental discussions in the context of the architectural education, probably these issues would be effecting the future of the architectural design of the future:

- (1) The expects of Heterogeneity and Multiplicity
- (2) The effections/penetrations of the world-wide-web
- (3) The conflicts between globalism and regionalism
- (4) The breaks of margins in architectural education

키워드 : 실내건축 교육, 이슈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실내건축은 인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부 환경 창출이라는 분야적 특성 때문에 건축과 내·외형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건축에 앞서는 주도적 역할을 할 때도 있다. 이로 인해 실내건축 분야의 교육 내용 또한 건축의 이해에서 출발하며, 건축 분야의 변화에 민감한 상호관계를 형성해 왔다.

미래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 건축가, 실내 건축가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의 교과 과정 속에 미래의 건축 방향을 예견하고 이를 반영한 구체적 교육목표와 교과 과정·내용을 형성함이 바람직하다는데 다른 이견이 있을 수는 없다. 그러나 1988년 이후 90년대 초에 비로소 설치되기 시작한 국내 4년·2년제 실내건축의 교육이 다양화, 가속화 되어가는 국내의 건축의 발전에 충분히 능동적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는가에는 의문점들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문화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90년대 들어서 방송매체를 통한 일반인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실내건축의 교육방향이 '교양' 분야 쪽으로 무분별하게 나아가는 듯하며 오히려 강화되어야 할 '전문' 분야적 교육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국내에서 이미 토착화가 이루어진 건축환경과 비교

해 볼 때 매우 열악한 물리적·인적교육환경의 부족 현상 때문에 교과과정 정립보다는 우선적으로 공간과 시설확보 및 전문·실무교수진 양성이 더 시급한 현실도 무시할 수 없다. 1996년 현재 전국적으로 30여 실내건축 관련학과들이 개설되어 있으며 국내의 영세한 실내건축업체가 수용하기 불가능한 다수의 졸업생들이 양산되고 한동안 이런 현상이 지켜질 전망이다. 실내건축의 전문영역 설정과 토착화를 위한 디자이너협회, 그리고 학회 등의 설립 및 이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노력이 90년대 초반 이후 진행 중이다.

실내건축 교육을 위한 국내의 교과과정의 비교연구, 건축과 실내건축의 직업군 및 역할 비교연구를 통한 교육모형제시 등의 선행되어진 연구 논문들은 교육의 구조적 틀을 만드는 시스템 및 교육프로그램 정립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비교연구는 계속되어야 하며, 선진 외국의 건축 교육과정 연구에서도 교과과정의 비교 검토와 교육내용 재정립, 실행 후 평가라는 일련의 feedback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디자인 분야 및 교육분야의 개방이 임박하고, 특히 급속도로 가속화되는 세계적 정보망의 형성으로 인해 자·타의적 교육개방이 되고 있는 현실점에서 요구되는 것은, 국외 건축 및 실내건축 교육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슈들의 수집, 분석 그리고 그에 따른 교육의 내용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정회원, 부천전문대학교 실내건축과 전임강사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1)국의 각국의 90년대 건축교육 동향 및 논의되는 이슈들의 수집, 그리고 정리를 통한 공통된 이슈들의 추출을 통한 포괄적 범위 설정 (2)건축을 출발점으로 삼는 경향이 큰 서구 실내건축의 교육에서의 미래지향적 방향에 대한 예견 (3)국내 실내건축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 개발을 위한 잣대가 될 교육 목표의 재설정 에 있다.

현재 우리 나라 실내건축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전체적 공통성은 있으나 전문적 특성이 개발되지 못함', 그리고 '사대에 대응하는 문제해결능력을 키워 주는 창의적 디자인 교육의 부재'에 대한 원천적 해결을 교육목표의 전환을 통해 우선적으로 시도하여야 한다. 한영호교수의 1인의 논문인 '실내디자인 교육에서의 기초디자인의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에서 결론적으로 제시되었듯이¹⁾, 미국대학의 기초실내디자인 교육과정의 흐름이 Abstract object design, Awareness development 단계에서 Building Design 단계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는 서구의 건축 교과과정이 근본적 문제해결 방법과 디자인 위주로 바뀐 반면 우리 나라 교과과정은 아직도 이론과 방법론 위주로 머무른 데서 비롯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근본적인 교육목표 설정의 전환은 곧 교육계의 공통된 이슈들의 분석 및 취합에 따른 결과이며, 이는 곧 건축디자인 이론의 변화와 직결되고 더불어 미래의 건축·실내건축이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연구의 방법으로서 선택한 90년대에 출간되어진 문헌연구를 통해 국내외 건축교육 관련 저서, 학술지, 월간지, 건축전공 학생 작품집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최소 3회 이상 언급되어진 현재와 미래 건축 및 교육 이슈들을 일차적으로 수집 하였다. (매우 다양한 이슈들의 언급된 빈도수에 대한 통계적 수치분석 보다는 이슈자체의 내용과 그배경 요인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본 연구에서는 논하여진 이슈들의 내용상의 유사성과 공통성 취합, 동일한 이슈로부터 유추된 새로운 시각을 우위에 두었다.) 수집된 이슈들을 비교 검토하는 과정에서, 건축의 미래적 방향 설정을 하기 위하여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계속 되풀이하여 논의가 진행중인 이슈들은 이미 충분히 연구되어졌다고 간주하여 배제하였으며, 현재 서구 건축교육의 교과과정 내용상 취약한부분이어서 논제가 되고 있는 동시에 미래의 건축사적 진화의 중요요인이 될 것이라고 예측,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이슈들을 추출 하여 보았다.

2. 건축과 교육 : 이론과 실무

본론에 앞서, 건축역사를 통해 보여지고 있는 '건축과 교육 : 이론과 실무' 라는 상호 공존/대립 관계가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 까지 존재하며 그중에서도

(1) 건축교육과 건축이론의 관계

1)한영호·김동영, 실내디자인 교육에서의 기초디자인의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 학회, No.3, 1994. 10, p.48

(2) 건축교육과 건축실무의 진화과정

이라는 두가지 이슈를 언급함으로써 논자의 기본적 관점을 설정한다.

2-1. 건축교육과 건축이론 : 관계(relation)

건축의 역사는 건축교육방법의 역사와 밀접하게 얽혀 있고, 현재에도 많은 지도적 입장의 건축학교들이 역사의 큰 진화(evolution)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²⁾ 건축의 이론(Theory)과 실무(Practice)는 상호 협력 및 비평을 통해 발전 혹은 후퇴, 재성장을 거듭해 왔고 그 사이의 매개체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학교와 학계가 담당해 왔다. 건축디자인 이론의 발전과 변화되는 교육의 내용 및 결과를 한눈에 보게 하는 것이 학생작품모음집이다. 건축 및 실내분야에서의 다양한 이슈들을 학생들의 건축프로젝트 과제를 통해 보여주고 있으며, 더 나아가 현재 동향과 미래의 방향제시를 하고 있다. 미래지향적 실험정신은 학생들에게서 볼 수 있는 널리 공인된 특질이라는 점은 감안해 본다면, 건축역사상의 많은 새로운 전환점들의 제시자가 세계의 대학들의 뛰어난 젊은 연구자, 학생들이었고 앞으로도 그러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이런 점에서 건축교육의 한계 범위가 끊임없이 재도전되고 있다.

2-2. 건축교육과 건축실무 : 진화(evolution)

Bernard Tschumi는 건축과 건축교육에서 지난 3000여년 동안에 일어난 세 가지의 큰 분리(dissociation)라는 이슈를 통해서, 교육의 역할을 역설적으로 주장한다.³⁾

첫 번째 분리

건축가는 건설하지 않으며, 조적공과 목수들이 건설한다.

두 번째 분리

건축가는 건축방법을 정하지 않으며, 건설업계가 정한다.

세 번째 분리

'디자인' 건축가는 건축도면을 그리지않으며, 현장건축가가 그린다.

First Dissociation:

Architects do not build, masons and carpenters do

Second Dissociation:

Architects do not define construction methods, the industry does.

Third Dissociation:

'Design' Architects do not prepare construction drawings.

Job architects do.

건축가이며 교육자인 추미는 위의 세가지 분리가 있기전·후에 학교의 역할에 있어서 큰 변모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동시에 건축에서의 계속된 분리가 그 세부분야(전공)들을 나누고 이 순간에도 그러한 분리가 계속됨을 밝히고 있다.

* 첫번째 분리는 1670년 건축(Architecture)과 건설(Construction)

2)Bernard Tschumi, One, Two, There : Jump, Educating Architects, Academy Edition, 1995. p.24-25

3)B. Tschumi 앞의 책과 동일 p.24-25

사이에서 일어났으며, Colbert 가 루이 14세 시대의 프랑스에서 설립한 이론(theory)과 실무(practice)의 분리를 통해서 당시의 막강한 길드 조직들(Guilds, 장인연합)을 분리·정복키 위한 정치적 목적이 그 배경이었으며 건축가들은 더 이상 건설현장에서 배워지 않고 학교에 가게 되었다.

Colbert가 주장한 목적처럼, 왕가의 제어밖에 있던 무역길드(trade guilds)들을 공격하고, 건축가를 장인의 지위로부터 철학자의 지위로 키우기 위함이었다.⁴⁾

* 두 번째 분리는 첫 번째 분리후 200여년이 지나고 보자르식 교육시스템으로부터 야기된 학문적 고전주의(academic classicism)가 득세하던 때에 일어났다. 미국의 건설업계가 건축가들의 영향에서 독립하여 독자적 건설공법을 개발함으로써, 건축가들이 건립과정(building process)의 정립에 관해 제어력을 가지지 못하게 된 것이다.

1819년 프랑스 루이 18세 시대에 설립된 Ecole Royale des Beaux Arts는 19세기에 와서 완전히 제자리를 잡게되고, 당시를 선도한 미국의 유명건축가(Sullivan, Richardson, Mckim, Mead and White)들이 모두 보자르학교에 유학을 갔다 왔으며, 종이 위에 이차원적 미학논리가 지배하고 아름다운 구성(composition)을 하는 것이 유럽과 미국의 건축디자인 방식이 된다. 드로잉과 고전양식들을 강조하였던 보자르식 교육 시스템은 당시 모든 곳에서 생기기 시작한 건축학교의 주된 방식이 되었고, 1881년에 미국에서는 두 번째로 생긴 컬럼비아 대학의 건축학교의 설립자인 William Ware는 기술적(technical) 측면보다는 인간적(humanistic) 측면을 더 강조한 건축교육을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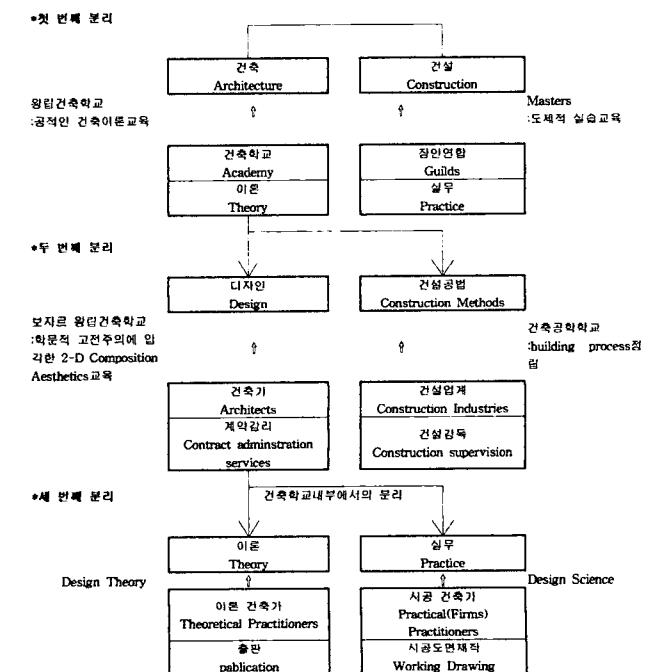
보자르식의 고전주의에 대응하여 생긴 유럽의 미술공예운동, 그리고 공예와 건설공법의 생산적 측면을 강조한 바우하우스 방식의 교육도 미국에서는 보자르 방식으로 변이 되어져서 도입된다.

1930년대 초반 뉴욕의 유망한 건축가들을 중심으로 하여, 모더니즘과 도시계획 연구로 인해 교과과정이 급격히 확장되어졌다.

* 세 번째 분리는 1970년대 이후 이론적 실무(theoretical practice)와 실제적 실무(practical practice) 사이에서 일어났다. 1960년대 서구를 중심으로한 학생운동 이후 많은 건축전공의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고립돼 있지 않고 오히려 주위의 외부 압력들을 예리하게 인지하여 연구에 몰두함으로써 학교라는 학문적 환경자체를부터 지대한 도움을 받았으며, 종종 실험적 본질을 가진 뛰어난 작품들이 대두되기 시작한다. 미술·건축·영상·언어분야의 연구 사이에서 복합적 교차가 일어나고 복잡한 건축시안이 장려되면서 '이론(theory)'이 핵심 단어가 된다. 지난 10년간(70-80년대) 많은 젊은 건축가들의 '이론적 실무(theoretical practice)'의 관점이 건축문화에 있어서 비범한 발전을 이룩하게 하였고, 이러한 이론적 실무는 건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을 이룩하게 하였고, 이러한 이론적 실무는 건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출판을 한다는데서 세 번째 분리를 증언하고 있다. 심지어 건축가 계급 내에서도 분화가 일어나서 스케치 디자인을 출판하는 'idea' 건축가들과 모든 시공도면을 제작하고 책임 보험료를 내는 거대한 규모의 설계회사들로 나뉘어졌다.

추미는 이러한 역사적 진화를 통해서 건축가들이 오늘날의 빌딩제작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현상을 지적하고, 특히 비약적인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건축가들의 이론적 실무와 실제적 실무, 그리고 건설업계가 완전히 변형되어진 점에서 진화는 더욱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건축가들이 디자인하는 건축적공간에서 발생하는 활동들을 향한 새로운 태도를 가지고, 건축(building)과 디자인 프로세스를 변모시키고 있는 새로운 전산화한 기술들을 개발하는데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상황을 디자인하여야 한다고 제의하였다. <표1참조>

<표1>



4) Geoffrey Broadbent. Architectural Education, Educating Architects, Academy Edition, 1995. p13-14 : Leon Battista Alberti가 주장한 이론의 중요성에 동의하여,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에서 Lorenzo de Medici가 플로렌스의 San Marco 광장에 소유하고 있던 Ciarden 내에 Acdemia Platonica라는 사립학교를 1470년대 중반에 설립하였고, 중세시대 이후로 여전히 나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The Craft Guilds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Bertoldo di Giovanni가 교장이었으며 Lerenzo가 직접 학생들을 선택하였고, Leonardo da vinci(1475년 입학), Michelangelo(1480 입학) 등, 우수한 조각가들이 배출됨으로써, Plato가 주장한 학교(an Academy)가 당시까지의 교육이 단순히 건축가, 화가, 조각가들이 스승(master)과 함께 일함으로써 배우는 것에 비해서 더 효과적인 대책이었음을 증명하였다.

메디치 왕가의 몰락과 더불어 Acadenia는 사라졌으나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후기르네상스가 프랑스인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1638년 언어를 위한 Acadmie Fran aise 설립 이후의 여러 전문 아카데미들의 설립을 촉진하였다. 루이 14세의 왕립건축학교는 '보다 정확한 지식과 이론을 공표'하기 위한 목표를 가졌던 일단의 건축가들에 의해 1671년 설립되어졌고, Francois Blondel이 초대교장으로서 일주일에 두 번 공공강연을 하였다. 산수, 기하, 역학(기계학), 군사건축, 축성학, 투시도와 석재절단 등에 대한 강의들이 있었다. 초기의 아카데미에서는 강의만 하였으며 학교 내에 디자인 스튜디오가 없어서 학생들이 스승들의 스튜디오에 가서 드로잉과 디자인을 배웠다.

3. 건축교육의 1990년대 동향

3-1. 건축교육의 이슈

현대건축교육의 구조적 바탕을 일목요연하게 밝혀내어 정의 내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듯하다. 이는 최근 건축의 이질적이면서도 광범위함은 건축디자이너들의 극도로 다양한 접근방법들이 실행되고있는 현실에서도 볼 수 있고, 이런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건축교육에서의 접근방법들의 범위에서도 보여지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건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확장' 되어왔고 (B. Tschumi는 역설적인 표현으로 '분리' 라고 하였음) 지금도 확장' 되고 있는 중인 분야이다. 그 속에서의 다양성은 환경, 도덕, 사회, 문화, 기술, 예술, 이론 및 출판 등 다양한 분야의 이슈들을 지역적, 세계적으로 야기시키고 있으며, 「환경·도덕/사회·문화/기술·예술/실무·이론/지역·세계」는 결과적으로 디자인을 가르치는 관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건축디자이너가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디자인하는가를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⁵⁾, 더 나아가서 '디자인' 이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정의하여야 한다.

'디자인', 그 의미는 우리 자신 뿐 아니라 우리가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미래를 발명하는 것이며, 이것이 건축이 표상하는 지식의 에센스이다.⁶⁾ 디자인은 상업세계 혹은 대학들 내에서가 아닌, 실무 중의 행위에 의해 건축이 이룩되는 과정 속에서만 발전되어질 수 있다. 건축은 전문적이며, 행위의 지식이며 결과적으로는 무엇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으로 집약된다. 건축의 직종으로서의 역할은 어떤 다른 형태의 학교기관도 책임질 수 없는 이러한 지식을 개발하고 전이하는데 있다. 전문적학교(a professional institute)란 무엇인가? 에 대한 영국왕립건축학회 회장(1995년) Francis Duffy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 전문적 학교란 무엇인가? 하나의 건물, 도서관, 강의들과 전시들, 기관과 학교들(schools), 구성원들인가? 아니다. 전문적 학교는 단지 집약된 자의적 욕구가 지식의 특정형태로서 하나 되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결과물일 뿐이다. 건축을대표하는 전문기관은 교육에 대한 관심의 정도에 의해서만 계량되어진다.

F. Duffy는 전문적 학교는 '거대하고 강력한 문화적 프로그램을 대표하고 있으며, 건축의 본질과 그 가치를 더 많은 대중에게 알리는 법을 찾는 데 존재의 의미가 있다' 고 논하고, 건축가들은 자신들의 전문적 삶을 통털어 스스로를 교육하기를 계속하여야 할 도덕적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 '전문가 의식(professionalism)과 교육

(education)은 동일한 같은 것이다.' 학교(academy)와 실무(practice) 양자가 다 필요하며, 이것은 곧 하나의 '연합/체류' 라고 논한다. 따라서 교육프로그램은 건축행위과정 전반의 현실감(reality)과의 접촉을 유지하여야 하며, 또한 과거를 돌이켜보고 미래를 발명하는데 있어서 지식의 중요함과 연구의 중요성, 그리고 필요불가결한 건축적 기능들의 다양성 또한 유지하여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B. Tschumi가 분류한 건축 내의 분리과정은 건축의 발전에 따른 자연스런 진화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건축교육의 특성으로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확장되어 왔고 확장되고 있는 중인 건축에 대한 끊임없는 진화과정이 필수적이라면 1990년대에 와서 이러한 '확장' 에 따른 국내외 건축교육의 공통된 새로운 이슈들은 네가지로 요약되어진다.

- * 건축교육의 이질성(Heterogeneity)과 다양성(Multiplicity) : 다원성(Plurality)
- * 건축교육에서의 컴퓨터의 역할 : WWW(World-Wide-Web)
- * 건축교육에서의 세계주의(Globalism)와 지역주의(Regionalism)의 갈등 : 정체성(Identity)
- * 건축교육의 한계성 : 근접성(Proximity) 성취

3-2. 이질성과 다양성

현대 건축교육의 구조적 바탕을 정립하기 위한 국제적 회합이 90년대 초반에 있었으며⁷⁾, 계통분류학(Systematics)에 의한 분류측정방법⁸⁾을 사용하며 건축교육에서의 전문적 테크닉 교육을 체계화시키고 또한 그 유효함을 각 단계별로 측정하고 기록하는 국제적 노력이 있어 왔다. 이러한 의도적인 이슈 및 교육과정의 수집, 분류 및 평가의 순환이 결과적으로 집약되어져 나타난 것이 학생작품모음이다. 이러한 출판물을 통해서 건축교육자들과 학생이 보다 폭넓은 디자인 아이디어를 접할 수 있고, 가능한 해결책들을 보다 직접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표 2 참조>

1990년대의 건축가와 교육자들의 견해, 학생작품의 경향 등에서 공통된 이슈로 부각된 것이 건축의 이질성과 다양성이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 현재 세기말에 접어들면서 주도적인 하나의 양식을 따르리라는 개념자체가 사라지고 난 뒤에 혼란스럽기까지한 건축에서의 이질성과 다양성은 심지어 무엇이 건축이고, 무엇이 건축이 아닌지에 대한 정의조차 의미를 상실케 한다. 이러한 건축의 이질성과 다양성의 공존은 건축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적용가능한 교수법 각 단계별 적용방법에서도 나타나는 특성이다.¹⁰⁾

1. 이질성(Heterogeneity) : 이질적인 건축특성들이 언제든지 연계되어 사용된다.
2. 다양성(Multiplicity) : 이질적인 건축특성들이 다양하게 중복되

7)Interaational Symposium of architectural educators. 1994. 2.9-2.11 University of Portsmouth, School of Architecture. United Kingdom
8)Foundations in Architecture Confeience
9)Foundations in Architecture, Van Nostrand Reinhold. 1995
10)Martin Pearce, Maggie Toy, Educating Architects p.7
'rhizo-me model' (덩굴뿌리 모델)을 이용한 적용이론 Owen Cappleman, Michael Jack Jordan

5)Giovanni Salvestrini, The Teaching Method. 앞의 책과 동일 p42
건축디자이너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하나의 훌륭한 프로젝트를 하는 능력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 건축디자이너가 무엇인지 어떻게 디자인하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디자인을 배우기 위해서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행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6)Francis Duffy, Education in Architecture, 앞의 책과 동일, p120
RIBA(The 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는 5년과정의 건축에 대한 재정지원을 얻는데 성공하였다. 이것은 매우 정치적 행동이었고, 건축이라는 특정행위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특정수준이상의 교육적 가치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려는 집약된 하나의 의지에 의해서만 달성되어졌다.

어저서 확인할 수 있는 연계지점을 찾을 수 없고, 항상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태로 있다.

3. 복합성(Plurality) : 이러한 이질성과 다양성의 공존은 결과적으로 복합성으로 나타나며, 반-단일화(a-singularity)라는 용어로 표현될 수 있고, 하나의 '단일' 의미로서의 존재로 특성 지워지기를 거부한다. 따라서 어떤 단계에서도 하나, 혹은 예측 불가능한 또 다른 궤도를 따라가므로, 마치 여러 갈래의 길들로 이루어진 목표지점 찾아가기 같이, 스스로 재구성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4. 전사성(Decalcomania) : 따라서 현대건축에 있어서 모든 차원(심지어 건축외적요소들에 이르기까지)에서의 실험과 연계성은 마치 위의 지도에서 길 찾아가기처럼 무한히 재건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진다.¹¹⁾

3-3. 컴퓨터의 역할

포스트 모더니즘 도래 이후 현재의 Internet의 등장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의 글에서 논해졌던 현실감 상실, 그리고 사물은 죽고 개념만 남아 있는 상태에 도달한 과정으로 표현되어진다.¹²⁾ '인간이 단지 일개의 스크린이 되어 모든 영향력의 네트워크들을 위한 일종의 제어센터(switching center) 역할을 하고 있을 따름이다.' 최근의 Internet은 학생들과 교육자들 모두에게 정보에 대한 순간적 근접성(Proximity)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 범세계적인 WWW(World-Wide-Web) System을 이용한 프로젝트들이 가능해지고 심지어 가상공간내의 건축도 건축이냐라는 논란이 오고간다. 세계와 지역간의 경계 없는 즉각적인 근접성 때문에 일어난 토론도 한창 진행 중이며 건축교육 또한 동일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현재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이를 토대로 미래를 건설하여야 하며, 반면에 이에 대조적인 모순을 자아내는 순간적 정보공유와 확산의 동질화 효과는 학생과 교육자 모두를 걱정하게 만들고 있다. 보드리야르의 논리처럼, 과다노출로 인한 개인성 상실에 이르는 소모시킴을 해야 함과 동시에 스스로를 정위치·정착시켜야 하는 모순에 직면하여, 복합성(plurality)을 추구하게 되는 현실이다. 현재의 폐쇄적 시스템이 이러한 소비테크놀로지로 인해 야기되고, 따라서 건축

11) 이러한 '전사성'이라는 현대건축의 특성이 오늘날 유수한 건축가들로 하여금 깊이 있는 역사연구를 하게끔 하는 원인이 되며, 또한 그들의 건축에 대한 긴 '이론'을 책과 글로써 재건하게 하는 동기가 된다고 생각한다.

12) Jean Baudrillard, 'The Ecstasy of Communication', Post Modern Culture, ed Hal Foster.

The schizo too great a proximity of everything, the unclean promiscuity of everything he touches, invests and penetrates without resistance, with no halo of private protection not even his own body, to protect him anymore...

What characteries him is less the loss of the real, ...the paths of distance and radical separation, ...bat, very much to contrary, the absolute proximity, the total instantaneity of things, the feeling of no defence, no retreat. It is the end of interiority and intimacy, the overexposure and transparency of the world which traverses him without obstacle. He can no longer produce the limits of his own beiry, can no longer play nor stage himself, can no longer produce him as mirror. He is now only a pure screen, a switching centre for all the networks of influence.

전공의 학생들에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개념이 과거 건축프로젝트의 핵심을 이루던 물체영역을 대체하는 점일 것이다.¹³⁾

오늘날의 지구에서는 물리적 체제나 도시의 전통적 영토치수가 없는 새로운 지도가 그려지고 있으며(예-인터넷 지도), 범지구적 비즈니스와 상호 연결된 테크놀로지들, 정치적 국경의 소멸, 예술간의 경계 소멸 그리고 이주 중의 각 국민간의 불화 도출 등등 새로운 형태학적 구조가 지도화되고 있다.

3-4. 세계주의와 지역주의 사이의 갈등

세계적인 건축물이라 일컫게 되는 건물들 - 파르테논, 피라미드, 자금성, 타지마할 등등-은 세계 건축문화속에서 지역적 정체성(regional identity)를 대표하고 있다. 현대의 건축은 지구상의 어디에 건설되는가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듯 하며 오히려 그것이 어떤 문화를 묘사하고 있는가가 더 문제되고 있다. 즉, 건축이 상상속에서 묘사되어진 건물형태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하나의 건물내부에서 여러문화의 상상력이 무차별적으로 재현, 묘사되어지는 것은 실내디자인, 실내건축에서는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역의 고유한 문화영역 속의 특정건물의 정체성(identity) 자체가 세계화되어 지구 곳곳에서 공유되고 재현되어짐으로써, 지역화와 세계화의 경계선이 모호해져 버렸다. 문화(culture)는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공간적으로 분할되어져서 지구상의 여러도시에 흩어져 있는 동화되지 않은채로인 건물들이 하나의 엘리트 세계문화권에 속하고 있다. 이런 건물들은 또 다른 현실(reality)에서의 건설인 것이다. 범지구적 하나의 세계문화에 대한 영감은 엘리트의 일부가 되는것에 대한 일종의 영감(aspiration)이고, 특히 선진세계의 가치를 내재하고 전달한다. 지역주의(regionalism)가 생긴 동기는 무엇인가? 한 지역적 정체성은 그 정체성이 위협당하기 전에는 논해질 필요가 없다. 차이(difference)의 개념은 동일(the same)이란 개념이 있고 난 뒤에야 생길 수 있다. '지역주의'란 문화적 제국주의에서 개발된 것이며, 지역주의자적 입장이란 것이 비 이기적 국수적 관점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관점이다. 하나의 건물을 볼 때 단순한 지역적 관점을 넘어서서 문화에서의 다른점(othersness)을 인식하고자 노력하고, 지역문화에 잘 들어맞는 점을 감상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역민과 방문객 모두가 지역적 정체성과 문화에 대한 변화에 저항하는데서 갈등이 생긴다. 외래문화를 고려할 때 일련의 재해석의 과정이 진행중인 것인 점은 명백하며, 외래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공공의 역할을 지닌 하나의 건물이 공공문화와 건축문화 사이에서 매우 다르게 이해되고 가치 지워질 수 있다. 결국 하나의 건물형태가 고려될때는 세계화와 지역화 사이의 명백한 반대관계란 없으며, 하나나 다른 하나로서의 존재란 개념이 없다. 매우 뚜렷한 지역적 특성을 지닌 건물들이 세계문화속에서 동화되어 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귀결되는 것은 하나의 문화가 하나의 건축을 창조한다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는 범세계적 정보통신 문화라는 것에서 건축을 창조해내어야 하는 시대에 사는 것이다.

13) Martin Pearce and Maggie Toy, Educating Architects. pp.8-9

3-5. 건축교육의 한계성

건축과 건축교육의 '이질성과 다양성' 이슈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오늘날 세기말 건축교육의 현장에서는 '이질성과 다양성'이 창조한 '상이성(diversity)'과 함께 '강박관념(paranoia)'은 어김없이 등장하는 요소이다. 건축학교의 학생은 특히 최신 avant-garde 작품을 모방·재생산하거나, 혹은 avant-garde의 창조자를 꿈꾸며 세상을 재창조하려는 강박관념에 몰두한 나머지 종종 건축프로젝트의 경계를 넘어선다. 심지어 오늘날의 avant-garde는 어떤 의미에서 더 이상 존재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이 지구 전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복제·재생되어져 버린다. 건축의 '확장' 자체가 건축이 바탕을 두고 있는 근본 본질조차 위협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건축이라는 영역의 '확장'과 '기반정립'이라는 갈등구조가 십수 세기를 통해서 건축에서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동시다발적 정보공유와 영역과파가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응하는 해결책을 도모하기 위한 논란이 90년대 최우선적 이슈가 되고 있다.

'건축에서의 전통적 실무와 이론의 관계'는 어떻게 재정립되어야 하는가? 컴퓨터로 인한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침투로 인해 이론이 실무영역을 차지하고 건축프로젝트의 산물마저 침해하고 있다. 건축이 복합적 멀티미디어 예술화되고 있다.

현대건축교육에서의 이러한 딜레마는 결과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근접성(proximity) 때문이며, 더 이상 짧은(물리적)거리가 가까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먼(물리적)거리가 외떨어짐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정보의 가능성이 경계도 없고 즉각적이라면 위치와 확실성이야말로 근접성을 이루는데 중요한 것이며, 근접성의 본질 혹은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의하여야 한다. 즉 인간이 주체가 되어 느끼게 될 개념적 근접성을 창조하고 이를 물리적 건축환경에서 재건하는 것이 오늘날 건축교육행위의 과제이다. 이러한 건축·실내건축환경의 재건 혹은 창조함에 있어서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폭넓고 쉬운 접근성을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얻은 정보를 각 디자인 단계별 선택의 시점에서 확실한 주제성을 가지고 적용하여야 하며, 정보에 수동적으로 지배당하지 않도록 유의하게끔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¹⁴⁾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건축교육에서 전통적으로 강조되었던 구조,

14) Alan Balfour, The Architectural Association, Educating Architects, p.78-79

AA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서 Intermediate School, Diploma School, 그리고 Graduate School로 구성되어 있고, 설립 시부터 모든 면에서 급진적·자유로움을 추구해 왔다. AA는 역사, 이론 및 테크놀로지에 대한 폭넓은 기초를 교육해 주는 것 외에는 정해진 교과과정(curriculum)이 없다. 학생 개개인은 하나의 디자인 단위를 정하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만 하며, 그 단위 속에서 폭 넓은 강의와 세미나들로부터 개인적 연구프로그램을 형성하는 자유가 있다. 디자인 단위들은 그 내용에 있어서는 천차만별이지만, 모든 단계별 수준에서 개인을 위한 하나의 공통된 관심으로서 연결되어 있다. AA학교 전체의 문화는 일시적 유행하는 스타일로부터의 거리, 그리고 건축을 계속하여 재-인도하려는 바람을 반영한다. 런던 AA의 역사적인 중요함은 주정부와 설립자에 의해 제어되는 교육시스템에 대한 반발로 창립되었다는데 있다.(창립 이후 150년이 지났지만 오늘날 더욱 더 이러한 학교가 필요한 것 같다.)

공간과 빛은 인간이 기계의 일부로 예측, 소멸되지 않는 한 여전히 가장 중요한 디자인 요소이다. 더불어 90년대 대학에서의 건축·실내 건축교육에서 디자인 이론의 중요함은 더욱더 증폭된 반면, 학생들이 건축 기초입문과정에서 디자인이론에 대한 쉽고 편리한 다단계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화 종합화된 디자인이론 저서의 부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자의 과제이다. 150년전 세워진 영국런던의 Architectural Association 학교의 설립자의 한사람으로 초대총장인 Robert Kerr는 이렇게 말하였다. : '학생이 스스로 배우는 학생이 되어 연구하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위해 질문을 찾을 때까지는 어떤 강의도 끝난 것이 아니다.'

가속화된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사회에서는 건축의 기본적인 것도 지속적인 가치들을 학생 개개인이 찾아내야 하며 그것은 매개체·도구로 삼아서 개개 인간과 건축사이의 근접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즉 땅 속의 뿌리덩굴처럼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정보 사회속에서도 건축가로서 정착과 확장을 스스로 해 나갈 수 있게 교육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4. 결론

본 연구를 수행한 궁극적 목적은 미래지향적인 국내건축(실내건축) 교육프로그램을 재 정의하여 발전시키기 위한 바탕으로서, 90년대에 대두된 건축교육의 이슈들을 비교·검토하여 보는데 있었으며, 연구과정에서 나온 결론은 다음과 같다.

서구 각국 및 몇몇 아시아 국가에서의 건축교육은 구체적인 교육목표의 설정과 이에 따른 능동적 프로그램 제시의 결과로서 전문적이고도 창의적인 건축가, 실내건축가들을 양성하고, 각 건축가들의 개성과 디자인 문제해결능력을 바탕으로 세계무대에 진출하는데 있어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를 디자인 도구로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건축학교와 건축가 개개인이 스스로를 교육하는 연구투자자와 시스템 재정립을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능동적으로 미래를 디자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래사회의 건축가, 실내건축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에서 건축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미래의 건축방향을 어느 정도 예견하고 이를 반영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교과과정을 형성함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공통된 견해이다.

국의 각국의 건축교육에 대한 이슈들의 연구를 통해서, 국내의 실내건축디자인 교육과정의 실제운영내용에서 적용 가능한 몇 가지의 공통된 점을 취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 * 건축디자인(실내건축디자인)을 하나의 프로세스로 본다.
- * 학생 모두에게 하나의 공통된 디자인언어로서의 용어와 개념을 가르친다.
- * 프로세스 속의 각 단계별로 학생 스스로 선택 가능한 디자인 방법 및 테크닉에 대해서 디자인 이론교육을 통해 폭 넓은 선택의 가능성을 갖게 한다.
- * 체계적인 역사 속의 사례 연구를 통해서 첫째, 건축가들에 의해 적용된 디자인 해결방법들의 비교·분석과 해석을 할 수 있게 하고

둘째, 모든 디자인 단계에서 학생들의 개별적 창작, 창조가 이루어 지도록 배우는 상황을 창안해 준다.

- * 학생들의 디자인 결정의 효율성 측정은, 프로세스의 각 단계별로 이루어지며, 교육자들이 제시한 하나의 참고모델과 비교하여 '표준적 품질'을 이룩하였는지로서 결정된다.
- * 복잡한 디자인 프로세스는 각 단계별로 단순화된 주제들과 작게 나뉘어진 문제들로서 서서히 이해되도록 한다.
- * 여러 문제들과 주제들로서 하나의 건축디자인 프로세스 자체를 의도적으로 디자인하여 과제프로젝트를 능동적으로 구성하고 이를 교육에 활용함으로써 더 구체적인 교육목표를 달성한다.
- *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교육을 수행하도록 허락하며, 교육자 자신의 교육법칙들을 설명하여 보여준다.

참고문헌

1. 하시모토요시, 하버드 대학의 시각예술교육, 도서출판국제, 1993
2. 안토니 안토니아데스, 건축시학, 도서출판국제, 1994
3. Francis P.K. Ching, 인테리어 시각표현사전, 도서출판국제, 1995
4. 103인의 현대사상, 민음사, 1996
5. 미래디자인선언
6. 한영호 · 김동명, 실내디자인 교육에서의 기초디자인의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3호, 1994. 10
7. 손철송, 전문대학 실내건축과 모형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3호, 1994. 10
8. Sam F. Miller, Design Process, VNR.
9. Stan Allen, Sites & Stations, Lusitania, 1996
10. Columbia Documents of Architecture and Theory, Vol 1, Rizzoli, 1992
11. Peter Cook, New Spirit in Architecture, Rizzoli, 1991
12. Martin Pearce, Educating Architects, AE, 1995
13. Owen Cappleman, Foundations in Architecture, VNR, 1993
14. John Hejduk, Education of An Architect, Rizzoli, 1988
15. Buie Harwood, An Interior Design Experience Program,
Part I : Defining The Need, Journal of Interior Design Vol 21, No 2, 1995

〈접수 : 1997. 2. 4〉